

# 정치권 4·29 재보선 모드로

### 민주 공천심사위 구성... MB정부 중간평가 강조 한나라 경제살리기 호소 속 경주·부평에 집중

여야 등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4·29 재·보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18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 11일 이미경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사를 2명 가량 포함시키는 7~9명 규모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 의미있는 성적을 범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우선 당 지도부는 '뒷발'인 호남에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공천'을 실시,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전주 덕진동의 경우 최대 뇌관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출마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데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도 완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에서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관심사다. 특히, 정 전 장관이 출마 명분으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당 해산'을 내건다면 개혁 공천을 내세우고 있는 지도부와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나간다면 수도권과 전주 중 어느 곳이 바람직한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홍영표, 홍미영 후보 등 일단 자체 후보 쪽에 무게를 두되 한나라당이 거물급 인사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 외부 영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나라당 = 11일까지 공천접수를 마무리하고, 다음날부터는 공천심사에 들어가 이달말까지는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 대한 공천을 매달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난 연말 정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 등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선거 전략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물고 가려는 야권의 시도에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의원의 재선거가 확정된 4개 지역 가운데 전주 덕진동과 전주 완산갑 등 호남 2개 지역을 제외하고, 경북 경주와 인천 부평을 등 2곳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두 지역 모두 전망이 밝지 않다.

우선 경북 경주의 경우 정종복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중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 측근인 정수성씨도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진이-진박' 대결 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 부평의 경우 박희태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판세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대항 지역 현안사업이 많이 걸려있어 여당 대표가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공방 확산 野 "사퇴 안하면 탄핵" 與 "법원 흔들기 말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이 정치권에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정치쟁점화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9일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e-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면서 탄핵소추에도 나설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왔지만 재판종용 e-메일 발송 행위 자체가 법관의 독립성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것인 만큼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내주 중 법사위의 대법원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추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권 공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일단 대법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지켜보는 한편 당내의 진상조사위 구성 여부도 대법원 조사 이후에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당 박승을 대변인은 이날 구두농성에서 "사실상 촛불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며 "사법부의 신뢰와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를 당하기 전에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재판을 둘러싼 것은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며 법원 안팎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당리당락을 위한 법원 흔들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세력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문제는 법원의 독립보다 법관의 독신"이라며 일부 진보성향의 일부 판사들을 겨냥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성영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판사가 신 대법관에 대해 사퇴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정권이 바뀐 뒤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법관들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사퇴와 탄핵까지 주장하는데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좋지 않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다면 법률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대법원의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보라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순방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 같은 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는 아당에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운태 "조달청 대지급제 확대해야"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9일 조달청을 통해 납품한 수요물자 대금에 대하여 조달청이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달청에서 공사나 물품의 계약한 대금 지급은 수요기관인 전국의 각급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허용했던 기존 방식을 조달청에서 공사나 물품대금 지급을 수요기관을 대신해 집행하도록 했



다. 강 의원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5~42일까지 걸렸던 납품 대금 지급 소요일이 신청 당일로 앞당겨지며 특히, 지자체 납품 시 계약금의 1.5%~2%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추가부담(연간 370억원)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재순 "소록도대교 인도 건설해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9일 인도가 없어 지난 2일 임시 개통된 소록도대교(고흥 도양읍-소록도-거금도)에 대해 추가 예산 반영을 통한 완벽한 시공을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록도대교 1단계 구간(도양-소록도)이 인도 없이 개설했기 때문에 차량이 아니고는 왕래를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1단계 공사를 시작하던 2001년에는 이 도로가 국지도로로 전남도가 시행했지만 그 이후 바로 국도로 승격돼 국토관리청이 인계해야 하는데도 준공 이후에 인계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어 인도 추가 건설은 물론 정식 개통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단계인 거금도 연륙교 사업도 인도 설계 없이 시공되고 있다"며 "지금이러도 현지 실정을 감안해 보완 시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로 승격돼 국토관리청이 인계해야 하는데도 준공 이후에 인계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어 인도 추가 건설은 물론 정식 개통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단계인 거금도 연륙교 사업도 인도 설계 없이 시공되고 있다"며 "지금이러도 현지 실정을 감안해 보완 시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촛불재판 의혹 조사중 돌연 "생각할 시간 달라" 신영철 대법관 사퇴 고려?

9일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신영철 대법관이 돌연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집무실로 돌아간 후가 주목된다.

김용담 조사단장을 포함한 복수의 조사단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법원에서 신 대법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오후 2시30분께 신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멈췄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조사단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조사 내용에 충격을 받거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금명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후 오후 1시30분께부터 다시 조사를 임했다가 한 시간 만에 중단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이날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우,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주

가 메일을 보냈는지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다.

아울러 위원실과 관련해 현재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정 신청이 접수된 뒤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절반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중단됐다. 조사단은 허 전 수석부장을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 불러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나 양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했으며 조사 도중 신 대법관과 한 자리에서 공통된 질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10일 조사를 재개해 사실 관계 파악을 마친 뒤 이번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합격을 앞서간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였습니다.**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9급 적중문제풀이 4주 완성 정형무채색원활약과정호전호지방술 (영어)10기능직 (영어)10기능직

**개강 소방직** (시행5월23일) 서울9월7일19일지방 (영어)10기능직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전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례/남·여승공체**

# 경 찰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현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1년과정	순경공체	특 체
6개월과정 •2개월 완성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2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6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화 •수강료 50% D/C 교체 25% D/C	•남-1차: 966명 2차: 214명 •여-1차: 40명 2차: 47명 •101단-1차: 120명 2차: 120명	•전경특체 240명 •경찰행정학과특체 100명 •경찰특공대특체 38명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 경 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가자격증 준비!! ★★★

# 공인증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장" 전원 서울에서 출강!

## 광주고시학원

3월 2일 (첫전도 시작반)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합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光州日報

#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 마사회 광주지점 시간제 경마직 채용

- 근무일: 금요일 1일 하루 근무
- 급 여: 2개월 수습기간 이후 52,000원(식대, 교통비 포함가)
- 복 지: 경조사비 지급, 1년 2회 상품권 지급
- 채용대상: 남성 00명, 여성 00명
- 근무시간: 오전 10:00~오후 6:30
- ※ 이력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남성접수시: rsweon@yahoo.co.kr  
▶ 여성접수시: lbs1713@hanmail.net